

후지보 - 얼룩실 직물 시리즈로 차별화소재 개발

후지보는 얼룩실 직물 “가프리스” 시리즈로 다양한 차별화소재를 개발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.

이 소재 시리즈는 30수, 40수 중심으로 면 100% 소재와 면 50%, 폴리에스터 50%의 혼방소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.

후지보에서는 “가프리스”에 사용되는 얼룩실을 “엘레간트슬럽(Elegant slub)”이라고 부르며, 방적공정 중에서 특수기술로 만들고 있는데, 일반적인 롱슬럽(long slub)이 아니라 짧은 슬럽이 특징이다. “면으로 마의 표정을 풍기며, 천 바닥이 깨끗한 소재”로 평가받고 있어, 춘하절용 캐주얼과 블라우스의 소재로 수요가 많다.

춘하절용 소재로는 “가프리스” 외에도 “프렌치리넨(french-linen)” 50%, 면 50%의 혼방 40수 단사로 짠 직물 “란라일”도 기대하는 상품으로 되어 있다. 또한 “가프리스”의 경사나 위사에 면·견 혼방소재 “엑산즈”를 사용한 소재도 금년 수요기부터 판매하게 될 것이다. 면 70%, 렉산 20%, 견 10%의 혼방소재는 곧 판매하게 되는데 “슬럽(slub)”이 풍기는 특징이 “실크 샐통(silk shantung, 중국의 山東지방의 手紡絹絲)”과 같이 수방사의 불규칙적이며 자연스러운 슬럽이 돋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. ♣